

신안군 전국 첫 군 단위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2024년 1월 공식 출범...산업 발전·주민복지 향상 등 기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 (재)신재생에너지재단이 전국 군단위로서는 최초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신안군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중소연회장에서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22년 6월 신재생에너지재단 기본 설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검토용역 도중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소 늦어졌다.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신안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출, 설립 취지,

정관 심의 등으로 총 5건을 심의했으며,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형진 전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이 선임됐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재단은 서류 등록과 법인 설립 신고를 거쳐 2024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총회 자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단일구역 최대 해상풍력 단지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햇빛 연금이 100억을 돌파한 지금,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이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신안군과 지역 사회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단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의 정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이사진 등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박제로 전시되는 푸른바다거북.

120cm 푸른바다거북 표본 신안갯벌박물관 상시 전시

8월 국제 멸종위기종 사체 발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내 최대 크기의 푸른바다거북 표본이 신안갯벌박물관에 상시 전시된다.

푸른바다거북은 몸길이 최대 2m, 몸무게 200kg까지 자란다. 등은 푸른색 바탕에 회갈색 또는 진한 갈색을 띠며 나이가 들수록 등갑에 불규칙한 방사상의 갈색 무늬가 나타난다.

어릴 때는 연체동물, 해파리, 작은 무척추동물, 물고기, 해조류, 갑각류 등 다양한 먹이를 먹지만 성체가 되면 해조류를 먹는다.

주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아열대 지역 바다에 서식하며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제주나 남해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오염, 불법 포획, 번식지 교란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적색목록에 위기종(EN)으로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다.

이번 신안갯벌박물관에 전시된 푸른바다거북 표본은 지난 8월 임자도 주민에 의해 사체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100kg, 몸길이 120cm, 등갑 길이는 86cm로 대형 개체다.

군은 사체를 인계받아 관련 허가를 받고 5개월간 과정을 거쳐 표본으로 제작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이 개체는 국내에서 표본으로 제작된 개체 중 가장 큰 크기 범주에 속하며 자연에서 최소 80년가량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 땅끝마을서 4년만에 해넘이·해맞이 행사

31일 오시아노 관광단지·1일 오소재공원...공연·EDM 댄스파티 등

해남 땅끝마을에서 4년만에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해남군에 따르면 31일부터 1월1일까지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제25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와 기상여건 등으로 지난 4년간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행사는 31일 오후 7시 지역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박완구 밴드와 제이세라, 지역 향우 출신 안세권 성악가와 함께하는 팬텀프렌즈 축하공연이 열린다.

신나는 EDM 댄스파티, 갑진년 새해맞이 희망 불꽃쇼와 행사장에서는 가래떡, 군고구마 등 온정 나눔과 영수증 이벤트, 민속놀이체험, 새해 희망쓰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월1일에는 해맞이 행사로 티베 띄우기, 퓨전국

악 공연, 새해맞이 희망의 북춤 공연이 이어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박타고 등이 펼쳐진다.

올해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두륜산 오소재에서도 각각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31일 오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는 해남팔경의 하나인 주광낙조를 배경으로 해넘이 기원제, 축하 공연, 불꽃쇼 등이 개최된다.

1월 1일 새벽 북일면 오소재공원에서는 갑진년 해맞이 기원제, 공연, 가래떡 인경나눔 등이 펼쳐진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곳, 땅끝 해남에서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갑진년, 청룡의 해의 좋은 기운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넘이·해맞이 축제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 올해의 우수정책 '해남으로 가는 꿈카' 선정

해남 정책 페스티벌, 군민생활 업그레이드 정책 다채

해남군이 올해 우수 정책을 선보이는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를 열고 '해남으로 가는 꿈카' 등을 올해의 우수정책으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직원·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우수시책 4건과 ESG실천사례 3건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보였다.

주요 우수시책으로는 ▲KTXY역과 연계한 전국 최초 캠핑카 시티투어 '해남으로 가는 꿈카' ▲특색 있는 먹거리와 야시장을 열어 전통시장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해남매일시장' ▲환경정화라일레와 방치쓰레기 일제정비 등 쓰레기 없는 '해남515마을 조성'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건강100세 행복버스' 등이 뽑혔다.

해남형 ESG 우수사례로는 ▲취약계층 돌봄·살

기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예코백 제작·실천하는 '생활속 ESG운동' ▲마을경로당까지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확산한 '회용품 없는 경로당 운영'이 선정됐다.

정책담당자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정책 설명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시책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번 경진대회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2024년 해



'2023 전담캠핑관광 박람회'에서 해남으로 가는 꿈카를 전시한 모습.

남을 만들어갈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 이로파출소, 경찰청 '베스트 파출소' 선정

부녀순찰대·야간 방법 순찰...치안 취약요소 발굴 등 노력

목포경찰은 이로파출소가 경찰청에서 시행한 '23년 베스트 지구대·파출소'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경찰청 '베스트 지구대·파출소'는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치안수요 ▲중요범죄 현장감거 ▲현장대응력 향상 노력 ▲현장 우수사례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이로파출소는 강·철도 등 중요범인 검거 및 현장 대응력 강화 등 우수 치안활동을 펼쳐며 각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전국 지역관서 2043개소(1급지 1217개소) 중 최우수 베스트 지구대·파출소로 선정됐다.

이로파출소는 매월 6회 부녀순찰대(이로동, 허암동, 옥암동)와 공인 인근, 원룸촌 주변 골목길 구간 야간 방법 순찰로 안전한 귀갓길 환경을 조성하고, 매주 1회 관내 노인정, 공인 일대방문해 보이스피싱과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홍보, 애로사항 청취 및 치안 취약요소 발굴, 개선 노력하는 등 정성지안 활동을 전개했다.

또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행정



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방문해 전단지 배부, 주요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 게시 하는 등 교통 혼잡,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전년 대비 중요범죄 건수 3.12%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준영 목포경찰서장은 "직원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정성지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협업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수험생 여러분, 완도해양치유센터서 힐링하세요

내년 2월까지 프로그램 할인
베이직 프로그램 천원에 이용
24~25일 어린이 X-mas 선물
일반인 50% 할인 이벤트 진행



완도 해양치유센터 해조류 거품 테라피.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내년 2월 말까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험생 힐링 이벤트'를 운영한다.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은 베이직 프로그램 1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 1만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말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인은 베이직 프로그램을 1만8000원,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6만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24~25일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하는 12살 이하 어린이 100명에게는 선착순

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압 마사지와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 말라소 풀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테라피, 스톤 테라피 등 16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환옥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은 "올 한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수험생들이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2025년 국도비 지원 건의 신규사업 41건 발굴

무안군은 18일 '2025년 국도비 지원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발굴 사업 41건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산 무안군수가 주재했다.

무안군은 정부 건축재정 기조 속에서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고회에서는 총 3148억원 규모 41건 사업이 발굴됐다.

발굴된 신규 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0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60억원 ▲무안군 위계별시정 조성사업 500억원 ▲영산강 느리지 지구 통합하천사업 486억원 ▲장포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80억원 ▲

영산강 자전거 전용도로 추가 설치사업 174억원 등이 있다.

무안군은 발굴된 사업안을 가지고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협의를 예정이다.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국회 측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단계별 대응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내년 초 국도비 확보 요령 교육과 사업별 상담을 추진하며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발굴된 사업이 반영된다면 협력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국정계획과 예산편성 기조에 부응하는 군민 편익과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양질의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